

십계명 >>

혁신은 필요하다만



홍지영 사진영상부장 (국문/연홍영·19)

“중이신문은 언론수용자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급격하게 쇠락한 매체로, 약 20년 전에는 조사 참여자의 대다수가, 10년 전에는 절반이 중이신문을 이용했으나 이제는 열 명 중 한 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언론수용자 조사』

중이신문을 만들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아프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얘기다. 우리신문사 역시 이 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면 학기에 학교를 다니며 바로 옆에 놓여 있어도 잘 열어 볼 일이 없던 학보사 신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학내에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잃었다. 연세춘추사라 적힌 현판이 붙은 편집국 문 앞에는 기자들과 금요일 밤을 새우며 만든 신문이 포장도 풀어지지 않은 채 쌓여있다. 편집국 문을 열 땀 애써 못 본 척 그를 지나쳐 외면하려 하지만 눈에 밝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오래된 지적이다. 언제 부턴가 우후죽순 생겨나 있는 전통 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이나 SNS 페이지를 보면 이 말을 실감하게 된다. 어찌 됐든 사람들에게 읽혀야 살아남는 언론에 디지털 혁신은 매번 뒤늦은 땀방울이긴 하나 필사적인 생존 전략 중 하나일 것이다.

사진영상부에 있던 지난 일 년간 가장 고민한 것도 결국 이것이었다. 기자였지만 누군가 「연세춘추」에서 무얼 했나 물으면 기사보다는 콘텐츠를 고민했다고 답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연세춘추」 홈페이지든 SNS 페이지든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 보게 할 수 있을지, 읽는 기사가 아닌 보는 기사의 시대에 맞게 카드뉴스를 만들어 올리고, 뉴스레터도 몇 번이고 만져봤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변화가 더더 답답한 마음에 개설된 SNS 채널이라도 활성화해보고자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이런 나름의 발버둥에 몇 명이라도 「연세춘추」를 한 번이나 더 클릭해보게 됐을까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이다.

한편, 보는 기사를 말할 때 영상을 빼둘 수 없다. 사진영상부에 있으면서 몇 번이고 ‘영상공장’이 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아무도 어떤 영상을 만들라 얘기해주진 않았으나 영상공장이 돼라 말했다. 학보사에 맞는 영상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의 끝은 결국 항상 인터뷰 영상으로 맺어졌다. 하지만 인터뷰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통일성 없는 영상들은 고민에 충분한 답이 돼 주지 못했다. 그렇게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감도 못 잡은 공장장 아래서 공장이 잘 돌아갈 턱이 없다. 공장이 돼야 하는데, 제대로 된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은 필요하다. 다만 방향 없는 외침은 마음만 조금하게 하지 결국엔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진정한 혁신을 바란다면, 우리신문사에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진 누구라도 잠시 멈춰 어떠한 의견이나 제안 모두 좋으니 같이 그려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설 >>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020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후 1년여 시간이 흘렀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개인 방역으로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지고 효과적인 약과 백신을 개발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0년은 인류 역사에서 잊고 싶은 한 해로 남았지만 다행히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여러 회사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21년이 되자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26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전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미국에서는 백신을 투여 받은 사람이 30%를 넘기면서 환자

발생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백신을 1회 이상 투여받은 사람이 각각 70%와 60%를 넘겨 접종률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칠레에서는 환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효과가 충분하고, 첫 접종 후 적어도 2~4주가 지나야 감염증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면역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칠레에서는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백신을 투여받지마자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로 타인과 접촉한다. 이것이 코로나19 환자가 줄지 않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군항제로 유명한 진해시는 지난 21일, “군항제가 취소됐으니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했지만

상춘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또 매화꽃으로 절정을 맞은 광양시 매화마을에도 상춘객들이 타고 온 차량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일부 상춘객들은 마스크를 벗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심신이 피로해진 국민들이 찾아온 봄과 함께 기지개를 켜고 싶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에 면역을 나타내는 집단면역을 형성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예방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면역기능이 발휘되기 전에 경계를 풀었다가 환자 발생이 늘어났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루 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봄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모두가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지고 방역에 힘써야 한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혐오범죄의 반면교사 삼아야

지난 1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한 백인 남성이 난사한 총격에 8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중 4명의 여성이 한국계로 밝혀져 우리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인종차별의 혐오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이러한 범죄행각들이 아시아계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의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사태가 아시아인들을 바이러스의 보고자 내지는 전파자로 보고 이들을 멀리하려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을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혐오범죄자들은 자신들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할 특정한 희생 집단을 ‘만들어 낸다’. 이들은 특정한 소수자들을 자기들의 안락과 번영을 해치는 벌레나 해충들로 부르며 이들을 소멸시키는 것을 삶의 신조로

삼고 온갖 폭력을 행사한다. 또 희생 집단의 사람들을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폄하하고, 죽여도 면책이 가능한 ‘호모사케르’ 같은 존재로 간주한다. 코로나19의 형국에서 아시아인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쥐와 같은 유기체, 즉 ‘호모사케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혐오범죄가 증대하고 있는 것은 인류사회가 병리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심상치 않은 증거다.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우파정당,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상징공간인 국회의사당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자신들과 다른 세계관이나 가치관, 생활양식 등의 이질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타자의 악마화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혐오 병리는 비단 물리적 폭력을 일삼는 일부 혐오범죄자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오늘날 혐오감정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세계에 널리 퍼져있다. 혐오는 연대와 신뢰, 관용과 용서의 덕목 대신 무한경쟁과 각자도생, 단죄문화가 기승을 부리는 곳에서 피어나는 적대와 증오의 감정이다. 또한 성공을 거머쥔 소수 능력주의자들의 오만과 뒤쳐진 자들의 굴욕, 사회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회의가 가득 한 곳에서도 피어나는 병리적 감정이기도 하다. 게다가 불안과 우울 증상을 나타내는 ‘코로나 블루’는 혐오가 더욱 증폭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병리적 혐오가 유령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지구 저편에서 발생하고 있는 혐오범죄의 메시지를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애드바른

▲ 야당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성공
오세훈, 안철수 후보 제치고 단일주자 등극
정권 ‘심판’론, 이번 선거에서의 ‘성패’는 어디로?

▲ 논의 22년 만에 국회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단일범죄로 규정... 최대 징역 5년까지
법의 ‘부재’로 눈물짓던 피해자, ‘범죄’로부터 구제받길

▲ ‘콜로라도 총기 난사’로 10명 희생, 미국 내 파장 이어져
바이든, 美 일주일 내 두 번째 총기 난사에 규제 필요성 호소
총기 난사로 ‘누적’되는 긴장감, 총기 규제 법제화는 ‘난제’

▲ 교육부, 부산대에 ‘조민 사건’ 조사 지시
조사 결과 따라 의원원·의사면허 취소 가능
교육부 조사 ‘결단’, 조국 사태 ‘갈등’ 해소 시발점 될까

▲ 이해충돌방지 2법, 3월 국회 통과 불발
여야 모두 내용에는 동의, 처리 기간 두고 이견
‘4월’에는 여야 ‘사이’ 의견 모일 수 있을까

▲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여파로 물가 치솟아
야채·곡류에 이어 주류마저 44% 가까이 상승
서민 ‘시름’ 깊어가는 한숨 ‘소리’만 가득한 장보기

만평



연세춘추

발행인 서승환

편집인 장원섭

신춘주간 장원섭

원주주간 예병일

편집국장 박준영

총무국장 김소현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 메일 chunchu@yonsei.ac.kr
-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yonseichunchu
- 인터넷 홈페이지 http://chunchu.yonsei.ac.kr

연세춘추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심습니다. 기고를 원하시는 분은 chunchu@yonsei.ac.kr로 원고지 8,5매의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때는 실명과 소속·학년 및 연락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펴낸 곳 : 연세대학교 대학인문사 연세춘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우) 03722 (☎ 02)2123-3365
찍은 곳 : (주)나눔커뮤니케이션 (☎ 02)3333-7136

